

12월5일(월)/히7:11~25 (1)

제목: 멜기세덱과 예수님 (3)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그 제사 제도는 불완전 것이기 때문에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11절).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이다(19절). 그러므로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기 하나님은 다른 소망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다(19절). 인간은 이 소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영원히 제사장이다(16~17절). 이제는 전에 있던 낡은 계명은 폐하여졌다(18절). 예수님은 낡은 제사 제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은 ‘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이로 인해 죄는 극복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모든 인간에게 열리게 되었다.

12월6일(화)/히7:11~25 (2)

제목: 영원한 봉사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일반적인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라는 표현이다(20~21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거스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직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또 한가지 예를 더 들어서 설명한다.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 제사장은 죽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다(23절). 그러므로 영원하신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영원한 것이다(24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죽으심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였고, 현재 하늘 나라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25절).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나, 현재 하늘 나라에 계실 때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봉사를 쉬시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섬기시는 봉사자이시다.

12월7일(수)/히7:26~28

제목: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봅시다.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과 다른 품격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기록하신 분이시다(26절).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선한 존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악이 없는 분이시다(26절). 즉, 남에게 전혀 악영향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다(26절). 예수님은 죄인과 구별되신다(26절).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26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른 면을 소개한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행할 필요가 없으시다(27절). 사람에게서는 악한 점과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28절).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약점이 없는 목사도 없고 죄가 없는 장로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 권사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예수님만 쳐다보아야 한다.

12월8일(목)/히8:1~13 (1)

제목: 진짜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한분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하늘의 성소를 섬기고 계신다(1~2절).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지만 그도 역시 드릴 것이 있어야 했다(3절).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땅에는 인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다(4절). 제사장들이 섬기는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5절).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들었지만 그것도 모형에 불과하다(5절). 이 땅에 있는 제사장 또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참다운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므로 사람들을 그림자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세상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지식, 최고의 미(美), 최고의 업적, 최고의 사랑, 최고의 부(副)도 다 불완전하다. 진짜는 저 곳에 있다. 크리스찬은 진짜를 바라보며 달음질 하는 자이다.

12월9일(금)/히8:1~13 (2)

제목: 새 언약을 가진 크리스찬

옛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새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겠지만 옛 것이 불완전하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7절).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는 예레미야 문장을 인용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9절).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파기되었다(9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낳은 것이 되었고 시대에 뒤지므로 곧 사라지게 되었다(13절).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다(10절). 새 법은 내적인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사랑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율법이 강제로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복종하고 싶다는 소원이 새겨졌기 때문인 것이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